

audio

2005 **9**

H · I · F · I · & · H · O · M · E · T · H · E · A · T · E · R 월간 오디오

특집 입문·업그레이드를 위한 추천 매칭 2

스포츠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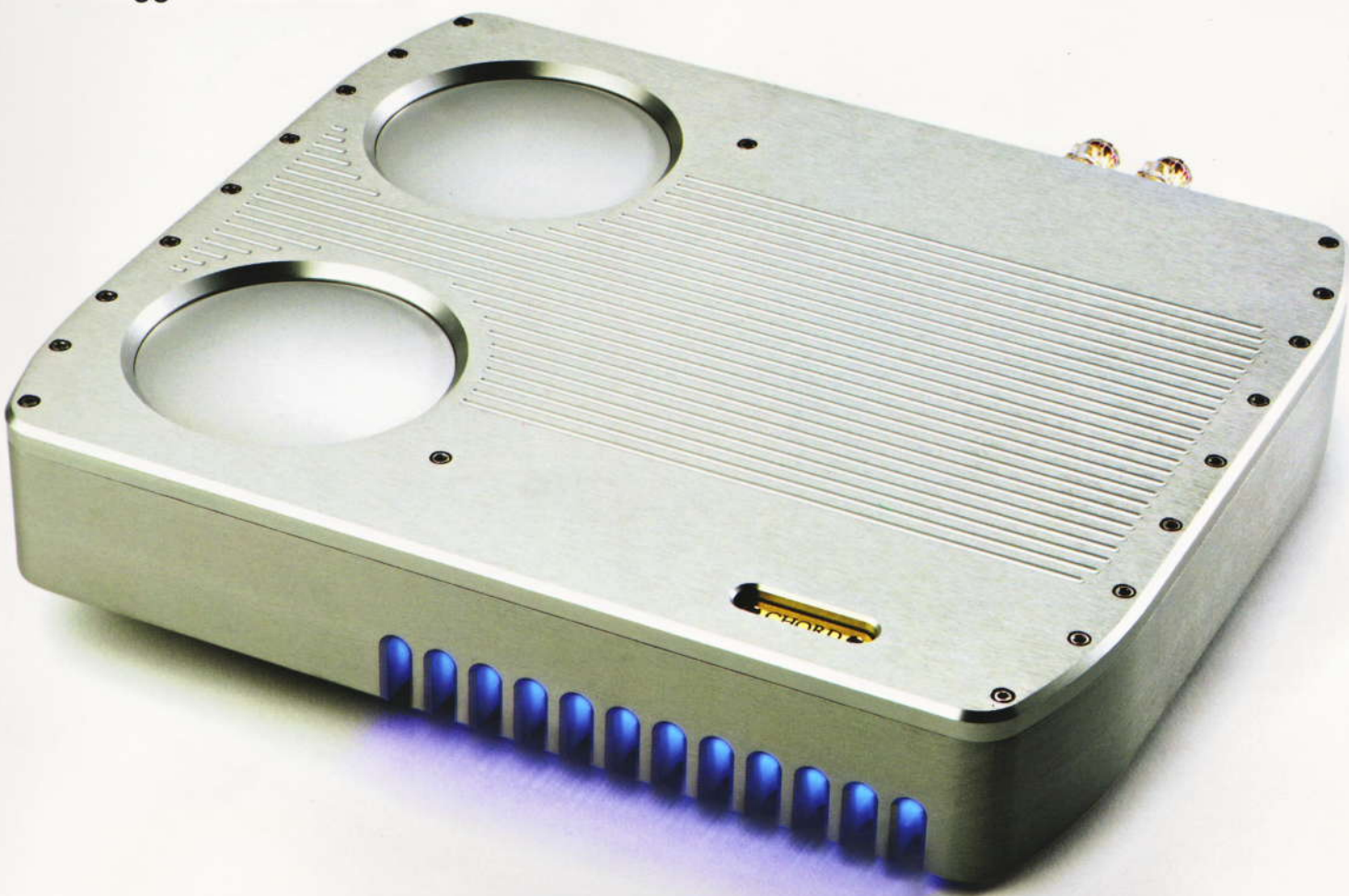
Chord Mezzo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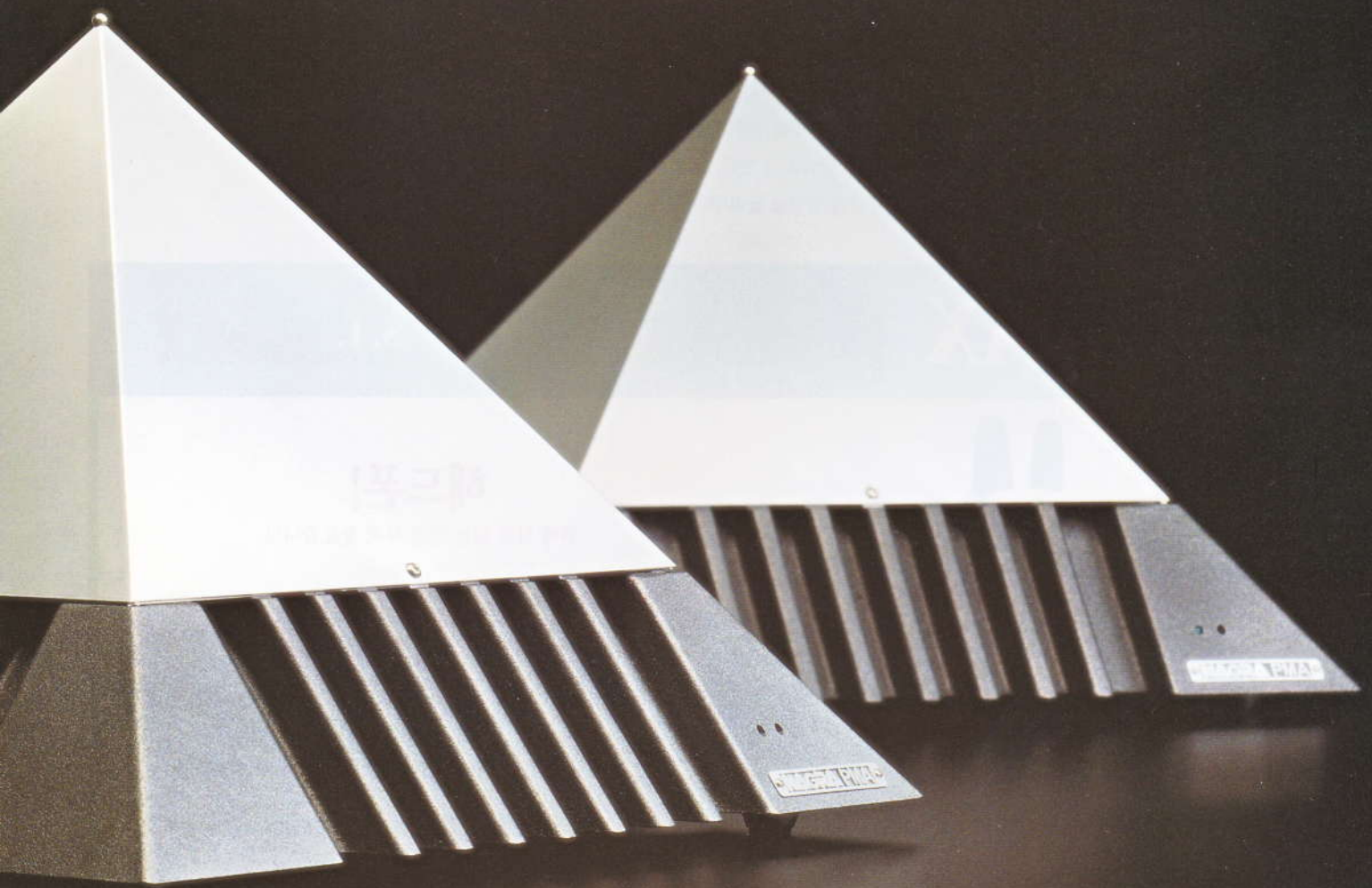
포커스

Gryphon Diablo

Nagra PMA

Wegg 3 Stelar MK2





PMA

피라미드에 담은 나그라의 저력

신동휴 | 오디오 평론가

날씨가 무척 더워져서 이제 내 방에서 마음 놓고 파워 앰프 스위치를 올리기가 겁이 나는 계절이다. 습기가 많아지고 기온도 높고 에어컨을 틀어도 때가 여름인지라 늘 듣던 앰프는 30분만 틀어 놓아도 방 전체가 찜통이다. 습도 탓인지 수명 탓인지 모르겠으나 서브로 잘 쓰고 있던 첼로의 앙코르 모노 파워 앰프가 탈이 단단히 난 모양이다. 배달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식중독이나 장염 정도면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이 여름철을 보낼 방도가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장을 잘하고 햇볕이 쨍그럽게도 쨍하던 날 D전자로 수리를 의뢰하려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제품이 가만히 놓여 있다. 첼로 앰프는 알아서 수리를 잘해 주실 것이고, 온통 그 제품에 눈이 쏠려 있었는데 바로 '나그라' 제품이다. 익스텐션까지 걸려 있어서 처음에는 릴렉인 줄 알았으나 방송국용 비디오 장비라고 한다. 제법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도 지금의 나그라 디자인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한눈에 보아도 나그라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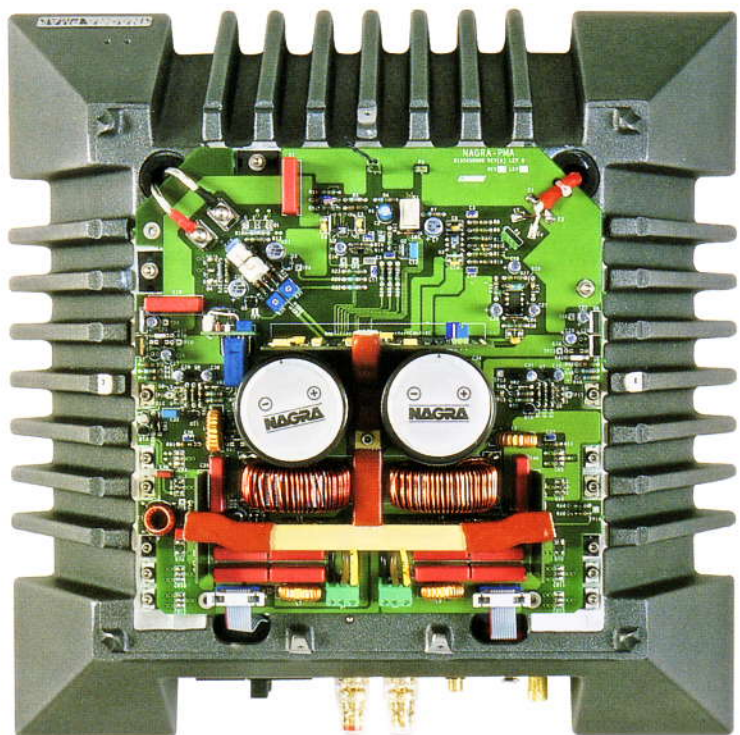
나그라는 스위스 국적을 가진 프로용 전문, 특히 녹음장비 제조에 거의 반세기 동안 일가를 이루고 있는 회사이다. 195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말 그대로 노장 중에서도 노장이지만 주로 프로용 기기나 방송국 장비를 생산해왔던 탓에 쉽게 접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다. 나그라의 오디오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진공관 프리앰프인 PL-P가 소개되면서부터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필자가 중학교 시절에 보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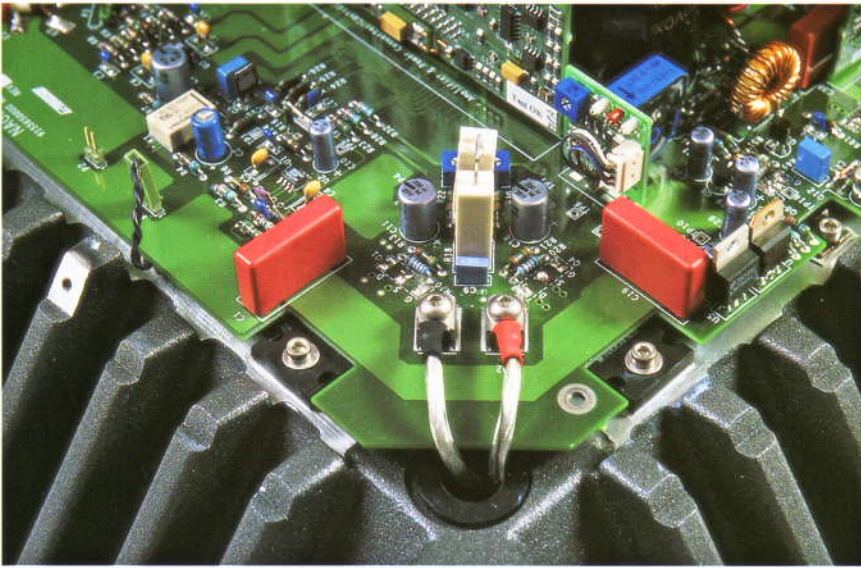
IV-DS라는 릴렉의 전면 디자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지금도 그 패널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디케이터 미터나 볼륨 노브 까지도 지금의 제품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진공관 프리앰프인 주제에 배터리 구동에다가 트랜스를 사용한 본격적인 포노 스테이지까지 내장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오디오파일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으니 민생용 제품의 데뷔치고는 꽤나 화려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 라인 전용 프리앰프인 PL-L이 소개되고 매우 독특한 디자인 컨셉트를 가지면서 845를 출력관으로 사용한 진공관 파워 앰프 VPA와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파워

앰프(혹은 인터앰프) MPA가 선보인 후 동사의 앰프 라인업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극한의 하이엔드 음질은 아니지만 음질만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에는 그 사운드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남이 보이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아마도 사용자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라 생각되나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는 굳힌 듯하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되는 파워 앰프의 이름은 PMA(Pyramid Monoblock Amplifier)인데 그 명칭 그대로 피라미드 모양인 파워 앰프이다. 그간의 제품들의 디자인이 계측기 같거나 프로기기의 딱딱한 모습이 연상되었다면 이 제품의 디자인은 그 겉모습만 봐





서는 나그라 제품답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명 그대로 모노 블록 구성의 파워 앰프인데 스테레오 버전인 PSA(Pyramid Stereo Amplifier, 채널당 100W)도 동시에 출시되었다. 실물을 보기 전, 단순히 이미지만으로는 매우 크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담하고 그리 무겁지 않다. 디자인은 분명 좋아하시는 분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질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선호도의 문제이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랙에 수납하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애기들이 놀다가 엎어지거나도 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앰프 하단의 방열 부분을 겸하고 있는 새시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마무리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피라미드 모양의 첨탑 부분

의 재질은 조금 부실한 것 같다. 단순히 커버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재질로 볼 때 스크래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움푹 눌린 자국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은색 커버 아래에는 주요 기관과 전원부들이 하단의 회색 새시 블록에 얹혀 있는데 메이커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조금 더 단단한 재질로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다.

PMA의 스펙을 살펴보니 채널당 200W의 출력을 내어준다고 한다. 앰프가 가벼워 좀 과장해 말하면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었으니 뭔가 낚새(?)가 난다. 게다가 앰프 내부의 이미지를 살펴보니 전원부의 트랜스도 작고, 커패시터의 용량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PMA는 최근 제프 롤랜드, 헬크로, 그리고 코드의 앰프들처럼 고효율 스위칭 전원부를 탑재하고 있다. 이전부터 나그라는

전원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 스위칭 전원부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깨끗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동사에서는 이 전원부를 PFC(Power Factor Corrector)라고 부르는데 특히 받은 기술이라고 한다. 이 PFC는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엄청난 전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출력소자는 Exicon사의 Mos-fet을 사용한다 하는데 엔지니어들이 테스트하여 선별한 부품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한다(사실 이런 부분은 하이엔드 업체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긴 하나 원가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앰프 결선을 위해서 뒷면을 살펴보았다. 뒷면 하단 정중앙에 WBT 계의 스피커 커넥터가 한 조 있고 전원 스위치, 전원 커넥터 등이 왼쪽에, 오른쪽에는 밸런스 및 언밸런스 커넥터 등이 장착되어 있다. 이체로운 점은 밸런스 연결과 언밸런스 연결시 점퍼선을 이용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일일이 직접 연결하기 귀찮다면 'Auto' 모드로 해놓으면 편할 듯하다).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밸런스 연결단자 바로 옆에 여러 가지 진단기능을 한 후 나타내는 LED가 달려 있는데 DC 전류가 흐르는지, 혹은 앰프가 과열되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파워 앰프 쪽으로 15분 이상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로 기능
이 정지하는 서비

스(?)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말은 보호회로가 매우 충실하다는 이야기이다. 채널당 200W의 출력인데 AB급 구동을 하며 S/N비는 104dB 이상이고, 주파수 대역이 10Hz-70kHz(최근 SACD나 DVD 오디오로 앰프의 대역특성 또한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전의 하이엔드 기기라고 하더라도 20Hz-20kHz 정도가 기본 스펙이니 이런 점에서는 나그라 파워 앰프가 최근 소스에 대응성도 고려한 것 같다)로 광대역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Mos-fet을 사용한 앰프들이 보여주던 고역의 답답함과 저역의 무른 특성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궁금했다. 프리앰프는 늘 듣던 마크 레빈슨 No.26과 크렐의 KSP-7B, KBL 등을 준비하고 첼로의 스트링스 벨린스드 케이블로 결선하여 AE-1 시그너처로 시청했다.

베를린 필의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의 도입부에서 나오는 팀파니는 전향이 풍부하고 매우 정확하게 끊어진다. 이 부분에서 생김새와 다르게 저역 통제가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고 느꼈는데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니 Mos-fet이니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음이 풍성하거나거나 반대로 매우 하이스피드하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앰프의 특성이 광대역이라 매우 침예하고 침단의 소리가 나올 것 같았지만 의외로 사운드는 단단한 저역을 바탕으로 정연한 소리가 나온다. 앞서의 브람스 교향곡이나 바흐의 곡을 들어보면 레이어링이 뚜렷하게 나온다고보다는 적절히 공간에 잘 믹스되어 나오는 경향이다. 내가 듣는 방식대로라면 중립에 가까운 경향이다. 앰프의 음색도 도드라지는 부분 없이 약간 밝은 쪽에 속하지만 같은 스위스 제품이라도 골드문트나 FM어쿠스틱스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재미있다. 마침 숙부님께서 오셔서 같이 들어보는 기회도 가졌는데 시크릿 가든을 좋아하시는 숙부님의 취향대로 한 곡 걸어보니 역시 첫 말씀이 저역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 말씀하신다. 매우 단단하고 골격이 뚜렷하다는 점에 호감이 간다고 하신다. 엔아의 보컬이나 전자악기의 울렁거림

이 좋다. 여러 번 겹쳐서 믹싱을 했다는 보컬은 앰프의 성격이 맞지 않으면 과도하게 울려 버려 별로 감흥이 일지 않지만 말 그대로 딱 맞게 나오는 경향이다. 마냥 신기루처럼 미묘한 허상을 만들어 낸다고보다는 음상이 상당히 실체감도 있고 크기도 작아서 아주 기본이 좋은 편이다.

음장의 재현 형태는 전후좌우로 넓게 펼쳐지기보다는 스피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밀조밀하고 세밀하게 그려내는 형태라고 느꼈는데 이는 프리앰프나 스피커의 세팅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비록 메이커는 달라도 국적이 같은 앰프들과 그런 부분에서는 경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정연하고 잘 만들어진 앰프라고 생각한다. 대략 세 종류의 프리앰프와 매칭해 보았다. 어느 쪽이 딱히 뛰어나다고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역시 제작 프리앰프와 매칭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시청에서는 KSP-7B가 의외로 선전했지만 좀 오래된 앰프라...

이 파워 앰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 앰프를 큰 스피커와 매칭하고 싶지 않다. 다소 차가운 분위기의 두랄루민이나 알루미늄제의 모던한 랙에 넣어 두고 북셀프 혹은 톨보이형 스피커를 준비하고 제 짝 프리앰프를 물려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급적 디퓨저 정도 하나만 스피커 사이에 두고, 따뜻한 유화보다는 다소 차가운 경향의 액자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스피커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윌슨 베네시의 디스크버리나 앙상블의 스피커들, 혹은 엘락의 JET를 사용한 스피커들을 떠올렸다. 이들과 매칭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앰프의 성향이 중립적이므로 사용할 스피커들의 선택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단, 같은 스위스라도 베른 호수의 시리도록 차가운 느낌의 극단적 세팅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수입원 : 우리무역 (02)573-3743

- 가격 : 1600만원
- 실효출력 : 200W(8 Ω)
- 주파수 응답 : 10Hz-70kHz(+0/-3dB)
- S/N비 : 104dB
- THD : 0.09% 이하(200W)
- 크기(WHD) : 38x38x30cm
- 무게 : 10kg
- 홈페이지 : www.nagraaudio.com

